

스웨덴 독거노인의 가족연대 강화 및 고독 감소

Stronger Family Ties, Less Living Alone, and Less Loneliness of Older Swedes

게르트 슌드스트림(예셰핑대학교 명예교수, 노인학연구소)

Gert Sundström(Sweden Jönköping University, Institute of Gerontology)

스웨덴 노년층을 둘러싼 흔한 이미지는 가족관계가 알고 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이들 노년층의 가족 간 유대 관계를 면밀히 살펴본다. 과거와 최근의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극소수이나 과거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를 두고 있다. 또 근거리에서 사는 자녀를 둔 노인의 수는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노인들은 고립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도 거의 없었다. 스웨덴 내에서 가족 간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간병인의 다수도 고령자였다. 전 세계적 추세와 달리 스웨덴에서 독거노인의 비율은 1980년대 40%에서 오늘날 33%로 오히려 감소했다.

1. 들어가며

스웨덴을 비롯한 서구 국가에서 현대 가족과 사회생활은 종종 규모가 작고 파편화된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다양한 친족이 함께 살며, 규모가 크고 보살필 인원이 더 많은 과거의 가족 양상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또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형태가 줄고, 혼자 사는 노인(그리고 청년)이 늘어난 것이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여겨진다. 전 세계적인 조사 결과 많은 국가에서 친족이 없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는 노인을 부양할 잠재적이고 젊은 간병인의 풀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가족 간병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어 더 많은 부담이 가족 간병인에게 가증될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북유럽 국가 스웨덴의 노년층과 관련된 데이터를 사용해 이러한

인식(이미지)을 철저히 검토하려고 한다.

대중 매체와 학술 연구에서 북유럽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전체 유럽 대륙 및 남유럽 국가와 대조되곤 한다(Reher, 2004). 영국과 아일랜드를 포함한 북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결혼하지 않거나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지 않고,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비율은 1800년대에 증가하여 1900년대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급격한 인구 증가, 빈곤 및 고령화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1900년 스웨덴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8%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였다. 이로 인해 당국은 (후에 고령 주택이 된) 빈곤층 주택을 마련했다. 1914년에는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는 조약한 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노인과 전문의, 가족학자들은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지역 연구 결과 역사적으로 스웨덴 인구의 약 10% 정도는 독거노인이었다. 최근 들어 비혼(非婚)은 독신 남녀에게 강요되는 어쩔 수 없는 삶의 형태가 아니라 선택에 따른 라이프스타일로 주목받게 되었다.

가족관계 관찰에서 그 대상은 주로 배우자·파트너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된다. 한 가지 이유는 이러한 관계가 인구 통계 데이터로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수직적 부모·자녀 관계가 부모 또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가장 유의미한 도움과 지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간병인 풀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노인이 (잠재적) 간병의 대상이 되며, 중년의 딸(자녀)이 간병을 제공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점점 더 중시되는 배우자·파트너 사이의 돌봄을 간과하고 있다.

2. 노년층의 가구구성과 생활방식 변화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가족관계와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효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형제·자매 관계는 대다수에게 가장 오래 지속되는 가족관계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파트너와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1940년대 초부터 스웨덴인의 혼인율은 점차 증가했고, 결혼한 부부는 이전보다 더 이른 나이에 결혼해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한다. 과거에 비해 이혼율은 상승했지만, 결혼 생활은 더 길게 지속된 것이다. 결혼은 1700년대 평균 15년, 1900년대 초 23년, 그리고 오늘날 49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웨덴에서 근래에 금혼식(金婚式)

이 쇠도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Lennartsson, Sundström & Wikström, 2017). 1800년대 초 핀란드 여성에 대한 지역 연구에 따르면 부인이 45세가 되기 전에 부인이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결혼이 해체되는 경우는 3쌍 중 2쌍이었다(Lithell, 1981). 지금보다 훨씬 덜 일반적이었던 당시의 노년 부부는 최초 혼인 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결혼으로 노년기까지 결혼 생활을 지속한 경우다. 1954년에 65세 이상 노인 중 46%가 결혼한 상태였다. 2000년에 그 비율은 48%, 2018년에는 52%에 달했다(Statistics Sweden, 인구 통계, www.scb.se).

혼인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스웨덴과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도시화와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청년과 노인이 혼자 살아가고 있다. 반면 친족이나 비친족과 함께 살아가는 형태는 감소했다(Tomassini et al. 2004). 스웨덴 노인 인구의 가구 구성 변화는 <표 1>에 잘 나타난다.

<표 1>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2000년 이후 혼자 사는 스웨덴 노년층의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스웨덴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이다. 다양한 역사 연구에 따르면 이미 1800년대에 스웨덴 노령 인구의 10~30%가 혼자 살았다고 한다. 오늘날 이러한 숫자가 감소한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결혼 생활이 더 오래 지속됐고, 젊은 세대처럼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가 노년층에서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 노인들은 새로운 동거 대상을 모색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수치를 넘어 적어도 스웨덴 노령 인구의 5%는 항구적으로 동거 관계를 지속하지는 않더라도 연인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를 둔 상태다(Bildtgaard & Öberg, 2018).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되 자녀

표 1. 스웨덴 노인 가구의 구성 변화(1954~2018년)

(단위: %)

	1954년	1975년	2002년	2018년
독거	27	36	40	33
배우자·파트너와 동거	30	49	57	61
기타 유형	43	15	3	5

* 1954년은 67세 이상, 나머지 연도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함.

** 반올림한 수치.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의 법률상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자료: 1954 SOU 1956: 1; 1975 SOU 1977: 100 지역 사회 내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재산출함. 2002년 스웨덴 통계청 생활 수준 조사(Statistics Sweden Level-of-living survey), 자체 산정값: 스웨덴 통계청 가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체 추정치. 서로 다른 출처를 사용하였기에 도출된 데이터가 <표 2>와 상이할 수 있음.

를 두지 않은 스웨덴 연금 생활자들은 문서상 ‘비혼’ 상태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

〈표 1〉의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노인의 상당수가 자녀나 타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임을 상기해야 한다. 1954년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는 27%였다. 이는 1975년에는 9%, 오늘날(2018년)에는 2%로 추정된다.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의 대부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혼 상태였다. 장성한 아들은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거나, 사정이 생겨 집에 되돌아온 경우다. 이들 노년 세대는 여전히 결혼 생활을 지속했다.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 처음에는 부모가 자녀의 집에서 함께 살기보다 자식이 부모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경우였다.

3. 노년층의 가족관계

앞서 언급한 바 있듯 대다수의 서구 국가에서 간병인의 풀은 대폭 감소했다. 45~59세 사이의 여성이 주된 간병인이라고 가정할 때, 1900년 노령 인구 1000명당 858명에 달하던 수는 2000년에는 586명, 2018년에는 471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통계는 실질적인 가족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정반대의 양상을 띠는 경우도 있다(Herlufsson & Hagestad, 2011; Sundström, 2019). 이후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실상 스웨덴 노년층은 3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가졌고 자녀와의 교류도 더 잦았다. 노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자녀에 대한 논의와 닿아 있다. 역사적으로 스웨덴 가족은 오늘날보다 더 많은 수의 자녀를 두었지만, 그중 다수를 여의어야만 했다. 1800년대까지도 신생아의 20%가 태어난 첫해에 사망했다. 1750년부터 1900년까지 스웨덴 여성 2만 3000명의 삶과 그들의 자녀를 추적한 한 연구에 따르면 5분의 1은 아예 자녀가 없었다. 자녀를 둔 여성의 절반은 하나(14%)나 둘, 셋, 혹은 네 명의 자녀만 두었다. 50세 이전에 너무도 많은 어머니들이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잃어야 했으며, 전부를 잃는 경우도 빈번했다. 아이가 살아남는 경우에도 아이와 왕래할 수 없게 되기도 했다. 12명 이상의 자녀를 둔 2%에 불과한 소수의 어머니들도 거의 절반 가까이 임종할 무렵 근방에 거주하는 자녀가 없는 상태였다(Malmberg et al., 2016). 과거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노인과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사실은 덴마크의 한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이 연구에서 1700년대 오텔스에 거주한 노인의 다수는 자식과 사별했다. 자식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는 경우에도 엄두도 못 낼 지리적 거리 때문에 자식과 왕래를 할 수 없었다(Johansen,

표 2. 노인의 배우자·파트너 및 자녀에 대한 왕래

(단위: %)

연도	배우자	자녀	모두 왕래	모두 왕래 없음	표본 수 및 인구 수
1957	46	78	41	17	1,064*
1985	51	69	43	23	1,389,215**
2002	58	77	51	10	2,103*
2015	60	88	56	8	1,704,080**

주: 1985 및 2015 자료는 스웨덴 출생 인구 합계를 바탕으로 함.

* 표본 수

** 인구 수

자료: Sundström 2019, 2002년 자료: 스웨덴 통계청 생활환경조사(Statistics Sweden Survey on living conditions, ULF 2002)에 기반한 자체 산정법.

1987).

스웨덴 노년층의 가족관계에 대한 최신 데이터는 <표 2>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노인과 가장 가까운 두 직계 관계가 강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노인들은 점점 더 배우자·파트너 및 자녀와 각기 혹은 둘 모두와 왕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둘 다 왕래가 없는 경우는 20~30년 전에 비해 거의 없었다. 또한 1954년에서 1985년 사이에 자녀를 갖는 비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후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곳에 자녀가 살고 있는 경향이 점차 증가했다. 1954년 65%가 자녀와 함께 살거나, 적어도 자녀 한 명은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지척에 자녀가 사는 비율은 1985년에는 46%였고, 2015년에는 58%로 늘어났다. 마지막 수치는 1954년과 비교할 때 과소 추정된 수치인데, 이는 1970년대에 지자체들이 보다 큰 구역으로 통합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요약하자면 자녀가 독립하기는 하나 적어도 자녀 모두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지는 않는다. 1954년 배우자·파트너 및 자녀 모두가 근방에 사는 비율이 평균 39%에 달하던 것이 1985년에는 29%로 감소했다가 2015년에는 다시 37% 수준을 회복했다. 역으로 근방에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이의 비율이 1954년에는 17% 이상 되던 것이 1985년 32%로 늘어났다가 2015년에는 다시 18%로 감소했다(Sundström, 2019). 지리적 접근이 증가한 것은 다른 스웨덴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Kolk, 2017). 이러한 추세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모두가 선호하는 양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두 세대 모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살기를 원하지만, 함께 사는 것은 원치 않았다. 여러 조사에서 거듭 밝혀졌듯 혼자 사는 노인은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4. 공공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사점

1994년과 이후 2014년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파트너나 자녀 등 가까운 가족에 대한 지리적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스웨덴의 가족 간병은 지난 수년간 계속 증가해 왔다(Sundström, 2019). 현재 진행 중인 2019년의 조사 결과에서도 이는 확인된다(Magnus Jegermalm, personal communication). 동시에 요양시설에서의 돌봄서비스나 가정 방문 간병서비스의 경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1975년 9%의 노인이 시설에서 관리되었고, 16%는 가정 방문 서비스를 받았다. 오늘날(2018년) 이러한 수치는 크게 하락해 각각 4%와 8%에 불과하다(Sundström, 2009; official statistics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for 2018).

다행히 돌봄서비스의 주 이용자인 독거노인 수가 줄고, 자녀의 수가 늘어난 데다 배우자·파트너와 함께 사는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공공 돌봄서비스 감소로 인한 사회 변화에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유럽 가족관계와 간병에 관한 전문가 보고는 배우자·파트너 및 자녀 관계를 넘어 형제자매 관계의 효용을 평가했다(Nazio, 2019). 형제자매가 서로를 도울 수도 있고, 젊은 세대는 형제자매가 힘을 모아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주된 간병인은 배우자와 자녀이다. 이들이 어느 정도로 간병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고령 스웨덴인은 간병 시간으로 추산할 때 전체 돌봄의 거의 절반 정도를 담당했다.

이들 고령자는 자녀나 타인 간병인보다 그 수는 적었으나, 남녀 가릴 것 없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간병에 할애했다(Abellán et al., 2017). 더 중요한 것은 수십년 전보다 간병인의 평균 연령대가 더 고령화되었다는 점이다. 1981년에는 부모가 생존한 노인의 수가 극소수였다. 하지만 2015년에는 노령 인구의 6%가 여전히 생존 중인 부모를 돌보고 있었다(Sundström, 2019).

다양한 가족관계 사이에서 중첩된 간병 관계를 보여 주는 사실도 있다. 2015년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생존해 있으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없이 혼자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중년층(45~64세)은 고작 0.5%에 불과했다.

노인들이 가족, 특히 자녀와 손자·손녀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되어야 한다. 늙어 가는 부모와 조부모는 젊은 세대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진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해 줄 뿐 아니라 아이 양육과 같은 다른 유형의 도움도 제공한다. 대규모 공공 탁아시설을 갖춘 스웨덴에서도 아이가 아플 때나 주말 또는 여름휴가 기간에 이 같은 도움이 필요하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많은 조부모는 손자·손녀가 태어날 무렵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이 같은 도움을 제공할 수 없었다.

5. 노년층의 고독 감소

1954년 이후 시행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노년층의 생각과 그들의 실제 사회생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1954년 설문 응답자의 14%가 가족이나 타인과 더 많이 교류하기를 원했다(SOU, 1956, p. 1). 1975년 조사에서는 28%가 자주(8%) 혹은 가끔(20%)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SOU, 1977, p. 100).

같은 설문에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들의 경우 더 잦은 고독감을 보고했다. 이는 이들이 성인이 된 자녀를 돌보거나 부양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결과일 것이다.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배우자를 간병하는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다수는 외부 도움이 거의, 혹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Sundström et al., 2009; Jegermalm & Sundström, 2017). 1981년 시행된 또 다른 조사에서는 다른 연구들에서 드러나는 양상과 마찬가지로 최고령층, 여성, 건강이 좋지 못한 이, 혼자 사는 이들이 흔히 고독감에 시달렸다. 조사 대상자의 11%가 항상(1%) 또는 자주(10%) 외로움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고 답했다. 기혼자의 경우는 3%만이 외로움을 토로했다. 이들도 간병을 하고 있는 상태로 추정된다(SIFO, 1981).

이후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발견되었으나, 사실상 고독감을 느끼는 비율은 노년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더 두드러졌다. 물론 노인들은 자신 이외의 노인들이 전반적으로 외로울 것이라 믿고 있었다(Tornstam, 1988; BBC, 2018). 여러 조사 결과 주로 자녀와 함께 기거하는 동부와 남부 유럽의 노인들이 덴마크,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의 노년층보다 더 큰 외로움을 보고했다(e.g. Sundström et al., 2009).

외로움·고독에 관한 조사 결과는 질문을 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2002~2003년 조사에서 52%의 스웨덴 노년층은 외로움을 느낀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으며, 38%는 외롭긴 하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나머지 10%는 가끔(7%) 혹은 자주·항상(3%) 문제가 될 정도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질문들이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지는 모호하다. 2012~2013 스웨덴 통계청의 생활 수준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실질적 고립은 드물게 발생하고, 이 또한 감소하는 추세임이 확인되었다. 약 4%의 성인 인구, 10%의 노년층만이 고립 상태(혼자 살면서 한 달에 2번 이상 가족이나 친구와 왕래하지 않는 상태)를 보고했다. 하지만 노년층이 아닌 이들도 외로움을 느끼긴 마찬가지였다. 조사 결과 가족이나 친구와 왕래를 하는 이들 중 12%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6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의 7%도 외롭다고 응답했다(SCB, 2018).

사회적 고독과 감정적 외로움이 서로 다름을 보여 주는 결과일까(SOU, 1976, p. 71), 아니면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까?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그들이 맺는 인간관계의 유형이 그들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혼자 산다는 사실 그 자체가 행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었다(Djundeva, Dykstra & Fokkema, 2019). 스웨덴의 데이터에서도 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결론은 결국 노인들 사이의 고독감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로움에 대한 데이터의 한계는 이들 지표가 단면적이라는 사실이다. 개개인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북유럽 국가의 연구에 따르면 단면적으로 살펴본 조사 결과보다 노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긴 했으나, 지속적으로 계속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는 극소수였다(Samuelsson, Andersson & Hagberg, 1998; Platz, 2005; Andersson & Sundström, 2019).

6. 나가며

강화된 가족관계의 정략적 증거를 최소한이나마 제시했다. 더 많은 노인들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를 두었고, 지척에 사는 자녀가 있었다. 광범위한 세대 간 도움과 지원이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에서 양방향으로 흔히 제공되고 있으며, 이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혼자 사는 노인의 수는 아직까지 다소 높긴 하나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고독감이 크거나 증가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 또 실제적 고립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이 논문은 ‘노인은 외롭다’는 만연한 이미지를 떨쳐 내고자 노력했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 사회에 외롭고 고립된 이들이 실존하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독거노인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 조건 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년층을 둘러싼 외롭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난무하고 고립된 이들이 그 이미지 속에 가려질 때, 우리는 이들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

알아두기: 이 논문은 스페인과학회(Spanish Council of Science CSIC)의 CSO2016-80908-R (Familias, lugares y generaciones)프로젝트 Programa Retos de I+D+I와 연계된 연구 결과다.

참고문헌

- Andersson, Lars & Sundström, Gerdt. (2019). En återkommande diskussion /A recurrent discussion/. *Äldre i Centrum* 33, 4, 2019, 54–57.
- Abellán, Antonio, Pérez Díaz, Julio, Pujol, Rodrigo, Jegermalm, Magnus, Malmberg, Bo & Sundström, Gerdt. (2017). Partner care, gender equality, and ageing in Spain and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eing and Later Life*, 11, 1, 69–89.
- BBC. (2018). *The Anatomy of Loneliness* (auth. Claudia Hammond). BBC October 1, 2018.
- Bildtgaard, Torbjörn & Öberg, Peter. (2017). *Intimacy and ageing: New relationships in later life*. Bristol: Policy Press
- Djundeva, Maja, Dykstra, Pearl & Fokkema, Tinneke. (2019). Is Living Alone “aging Alone”? Solitary Living, Network Type, and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74, 8, 1406–1415. doi:10.1093/geronb/gby119.
- Herlofsson, Katharina & Hagestad, Gunhild. (2011). Challenges in moving from macro to micro: Population and family structure in ageing societies. *Demographic Research*, 25, 337–370.
- Jegermalm, Magnus & Sundström, Gerdt. (2017). Det svenska omsorgspanoramat. Givarnas perspektiv. /The panorama of caregiving in Sweden. The perspective of the carers/. *Tidskrift för omsorgsforskning*, 3, 1, 18–26.
- Johansen, Hans-Christian. (1987). Growing old in an urban environment. *Continuity and Change*, 2, 2, 297–306.
- Kolk, Martin. (2017). A life course analysis of geographical distance to siblings, parents and grandparents in Sweden. *Population, Space and Place*, 23(3): e2020.
- Lennartsson, Carin, Sundström, Gerdt & Wikström, Petter. (2017). De äktenskapliga långkärnorna. /The long-lived marriages/. *Vålfärd* 4/2017.
- Lithell, Ulla-Britt. (1981). *Breast-feeding and Reproduction. Studies in marital fertility and infant mortality in 19th century Finland and Sweden*. Uppsala: 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 120.
- Malmberg, Bo, Sandström, Mattias, Sundström, Gerdt & Lennartsson, Carin. (2016). *När barnen går först. Historiska perspektiv på att förlora barn. /When the children go first. Historical perspectives on losing children/*. <http://hj.diva-portal.org/smash/get/diva2:862442/FULLTEXT01.pdf>
- Platz, Merete. (2005). *Et aeldreliv i ensomhed? /An old-age in loneliness?/* Copenhagen: Gerontologisk Institutt, Skriftserie Nr 9.
- Reher, David. (2004) *Family Ties in Western Europe. Persistent Contrasts*. In (Eds. G. Dalla Zuanna & G. Micheli) *Strong Family and Low Fertility. A Paradox?* The Netherlands: Kluwer.
- SCB. (2018).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levnadsforhallanden/levnadsforhallanden/undersokningarna-av-levnadsforhallanden-ulf-silc/pong/tabell-och-diagram/sociala-relationer/sociala-relationer-kontakter-och-umgange/>
- SIFO. (1981). *Ensamhetskänslor och umgänge bland äldre. /Loneliness and socialising among older persons/*. Mimeo.
- SOU 1956:1 Åldringsvården. /Old age care/. Government White Paper.
- SOU 1976:71 Roller i omvandling /Roles in transition/. Government White Paper.
- SOU 1977:100 Pensionär '75. Intervjuundersökningen /Pensioner '75. The interview study/. Government White Paper.
- Samuelsson, Gillis, Andersson, Lars & Hagberg, Bo. (1998). Loneliness in Relation to Social, Psychological and Medical Variables Over a 13-Year Period: A Study of the Elderly in a Swedish Rural District.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ging*, 4, 3, 361–379.

-
- Sundström, Gerdt. (2009). *Demography of Aging in the Nordic Countries*. In *International Handbook of Population Aging* (Ed. P. Uhlenberg). New York: Springer.
- Sundström, Gerdt, Fransson, Eleonor, Malmberg, Bo & Davey, Adam. (2009). Loneliness among older Europeans. *European Journal of Ageing*, 6, 4, 267–275.
- Sundström, Gerdt, Jegermalm, Magnus, Abellán, Antonio, Ayala, Alba, Pérez, Julio, Pujol, Rogelio & Souto, Javier. (2018). Men and older persons also care, but how much? Assessing amounts of caregiving in Spain and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Later Life*, 12, 1, 75–90.
- Sundström, Gerdt. (2019). *Mer familj, mer omsorg. /More family, more care/*. Storvreta: Familjen först (www.familjenforst.nu).
- Tomassini, C., Glaser, K., Wolf, D. A., Broese van Groenou, M. I., & Grundy, E. (2004). Living arrangements among older people: An overview of trends in Europe and the USA. *Population Trends*, 115, 24–35.
- Tornstam, Lars. (1988). *Ensamhetens ansikten. En studie av ensamhetsupplevelser hos svenskar 15–80 år. /Faces of loneliness. A study of perceptions of loneliness among Swedes 15–80 year old/*. Uppsala University: Projektet Äldre i samhället – förr, nu och i framtiden.
- Verdery, Ashton, Margolis, Rachel, Zhou, Zhangjun, Chai, Xiangnan, Riitrong, Jongiit. (2019). Kinlessness around the world. *Journal of Gerontology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74, 8, 1394–1405. <https://doi.org/10.1093/geronb/gby138>.